

# 시온 주보

제2528호  
2024년 11월 3일(나해)

연중 제31주일

## 착한 사마리아인

외젠 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 1798-1863)  
1849, 캔버스에 유채, 37×30cm  
개인 소장



### 입당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1독서 | 신명 6,2-6

### 화답송 | 시편 18(17),2-3,7,3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대!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 제2독서 | 히브 7,23-28

###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음 | 마르 12,28ㄱㄴ-34

###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하느님께 나아가는 두 날개



박규흠 베네딕토 신부 | 제14동작지구장

우리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꼭 1등이 누구인지 정해야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 중에서도 누가 더 좋은지 선택을 강요받으며 커운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인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한 율법 학자도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마르 12,28) 하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고 싶었던 질문을, 고맙게도, 이 율법 학자가 대신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 학자는 분명히 한 개의 정답을 바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첫째가는 1등 계명이 무엇인지 깔끔한 한 개의 정답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두 개의 답을 주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는 두 개의 계명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두 날개가 되어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만 하느님께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전설의 새 비익조는 암수 각각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둘이 몸을 꼭 붙여 껴안고, 하나 된 날갯짓을 힘차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느 한쪽의 날개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라는 날개와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날개가 마치도 비익조처럼 하나의 날갯짓을 할 때, 하느님을 향한 힘찬 비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느님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하느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요란할 뿐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혹은 어느 정도 무책임하게 “네.”라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과 망설임을 동반한 깊은 반성과 사색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양심적이고 솔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날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하나 됨의 조화를 이룰 때만이 하느님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을 묘사하면서 그의 자세와 근육, 심지어 그가 입은 옷 색깔을 통해 그가 온통 상처 입은 이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온전히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해설

## 168분의 1



정승제 안토니오 | 수학 강사

저는 어머니 덕분에 유아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 미사를 거르는 건 ‘죽을죄’와 맞먹는 일이라 여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명분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상 고3이 성당에 다니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죠? 이해 못 하시겠으면 대학에 떨어트리시고 이해하시겠으면 대학에 붙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뻔뻔했다 싶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주님을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서는 저를 대학에 붙여주셨지만 저는 은혜도 모르고 대학생이 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009년은 저에게 참 힘든 해였습니다. 누군가 이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외로웠고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성당을 찾았습니다. 고해소에 들어가 얼마나 오랜만에 성당에 왔는지를 말했더니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서는 형제님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실 거라고요. 힘드니까 이제야 당신을 찾는 부끄러움과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주님의 따뜻한 환대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미사 내내 주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례 내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빛으로 다가와 제 안의 모든 어둠을 흘려보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일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인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미사 시간만큼은 되찾은 아들처럼 주님께 달려갑니다. 수학적으로 봐도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8분의 1만 투자하면 나머지 167마저 꼭 채워지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의 168분의 1이 진짜 168분의 1일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푹뭉뭉뭉한 눈으로 제 이

야기를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저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앉아 있는 아이들을 수없이 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여기 없는 아이들은 답답함에 몸부림치거나 그냥 잠을 자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무슨 소용이니?’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제가 더 괴로울 지경입니다. 어쩌면 이 시선이 미사 시간에 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드리던 미사는 어디 가고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저를 보면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주님도 똑같이 제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소용이니?’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이지 애타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168분의 1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주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11월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남편만 믿고 시집왔는데 특하면 저와 아이를 때렸어요. 견디다 못해 도망쳤는데 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국내 이주 여성 쉼터에는 10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주사목

위원회 산하 가정 폭력 이주 여성 시설도 협소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남아들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무리였지만, 끔찍한 가정 폭력에서 도망친 유리(가명, 30세) 씨의 사정을 못 본 채할 수 없어 긴급히 입소시켰습니다. “수녀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덕분에 시설이 제겐 두 번째 가족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른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유리 씨는 시설에 있는 동안 그렇게 조금씩 심신이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10살 이상의 남자를 받기에는 시설 내 공간이나 환경이 여의찮기에, 유리 씨와 비슷한 상황의 이주 여성들을 위한 가족 보호 시설의 증축이 시급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이주 여성과 동반 자녀를 위해 법적 절차나 생활 지원을 돕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려면 여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주사목위원회에는 이주 배경 아동들을 위한

마고네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엄마와 살고 있는 엔젤(가명, 12살)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말도 잘 못하고, 수업도 따라가지 못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센터에 나오면서 1학년 기초부터 일대일 수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따라와 준 덕에 1년여 만에 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6학년이 된 엔젤은 학급 부회장이 되었고, 센터에서도 리더로 성장하여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고네지역아동센터는 이주 배경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호처이자 미래의 희망을 일구는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환경입니다. 비가 오면 누수되는 천장이나 열악한 센터의 위생 상태도 그렇지만 주변의 많은 술집과 나뉠구는 술병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동들이 즐겁게 배우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경제적 홀로서기부터 걱정해야 하는 이주 여성과 동반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지난 2023년 5월 7일 자 '사랑의 손길' 사연 소개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시설 '연두꿈터'가 올해 12월 31일부로 시설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 후원금은 '연두꿈터'와 비슷한 지향으로 '영유아'를 위해 운영하는 '디딤자리'에 관련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모금액 반납 과정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22일	2024년 6월 27일	2024년 8월 27일
사업계획서 제출 (연두꿈터 생활환경 개선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모금액 시설 지급 (금 113,954,344원) 및 사업 진행	서울시 시립아동 복지시설 개편 계획에 따라 운영종료 발표	중도 후원 사업 종료 및 미집행 사업비 반납 (금 78,526,103원)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11월 2일~29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이주사목위원회'를 위해 쓰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 질투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신약의 하느님이, 외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시어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라면, 구약의 하느님은 분노의 하느님, 폭력의 하느님처럼 보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라는 말씀이 신약의 하느님을 상징한다면, 구약의 하느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탈출 20,5)라는 구절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이중인격을 갖고 계신 분일까요? 이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하느님의 질투하는 모습이 “비윤리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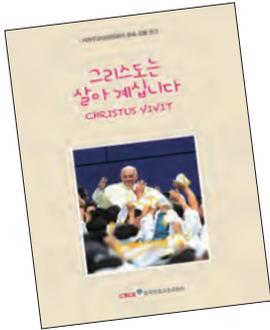
그렇다면 하느님의 ‘질투’의 감정은 과연 어떤 감정일까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혼인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호세 2,21) 한편 성경에서 질투의 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질투(μῆτις 진아)’는 직역하면 ‘눈의 거슬림’입니다. 즉 하느님의 질투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애달픔, 아픔, 비통함의 감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 사랑의 중요한 조건이 ‘회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것’, 회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이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이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질책하십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49항) 이러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결국 구약의 하느님 마음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소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그리스도교인들조차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용인하며 심지어 침묵합니다. 경험과 문화, 성향 등 여러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목헌장>은 “사회, 정치, 종교 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호의가 진리와 선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28항)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 얼마나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야고 4,5)



하느님을 다소 모호하고 부족하게 알고 있는 젊은이일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진정한 형제애를 꿈꾸면서, 또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여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예술적 감수성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갈망, 타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들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1-85항과 103-110항을 읽어봅시다.

### 요즘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어떤 은총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최유진 스텔라(길음동성당)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가진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겪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소진하여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이룬 후 종종 허망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었고, 자주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한결같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는 제가 신앙 안에서 품은 열망과도 일치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들로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순간 내 곁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 작은 순간들을 봉헌하는 삶, 그것이 제가 갈망하는 삶입니다.



장길산 사도요한(길음동성당)

요즘 본당 음악회를 위해 청년 성가대 단장으로서 합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품어왔던 합창에 대한 갈망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큰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청년들 대부분 합창 경험이 거의 없지만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모였습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기쁨과 희열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론 진척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성했던 처음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 유의미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연습하는 시간 동안 ‘저의 욕심에서 비롯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일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막연히 합창을 잘하는 것보다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하나 되는 청년회가 되어 가는 것이 제 갈망이자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부여,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되찾은 것,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나에게서는 먼저 잃어야 할 것이 있었다. 내가 얻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서는 먼저 감내해야 할 것이 있었다. ... 마침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무에 만개한 꽃들은 저 아래 물힌 것들에서 생명을 얻고 있음을. (108항, 프란치스코 L. 베르나르데스 시 재인용)

## 죽음을 향한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라 생각하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죽음을 저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에 비해 고대 로마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였습니다. 죽은 이들은 죽음이 “오늘 나에게 있지만, 내일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 안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문화인류학에 따르면 인간만이 죽음을 기억하고 추념합니다. 무덤과 장례는 그 표징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문화적 인간, 인간다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과 존재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맞이할 때 새롭게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 죽을 때의 그 얼굴이 곧 우리 삶이며 존재라는 말이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인간의 지성적 작업인 철학을 ‘죽음의 연습’이라 부르면서 철학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죽음 문제를 고뇌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원하는 만큼이나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죽음과 씨름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인간은 학문과 예술을, 철학과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다른 생명체들은 숨이 끊기면 다만 사라져갈 뿐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대비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외면하기도 하지만, 담담히 죽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 생각함으로써

써 지금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만이 죽는다.”라는 말은 이런 태도를 일컫는 말이지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 있기에 진리와 정의를 찾고,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를 성취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명상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비우거나 절제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죽음은 생명체에게는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인간만이 죽는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 이상이지요.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은 세계의 변화를 의식하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의 끝이 죽음일지 모르지만 죽음을 현재화할 때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미리 결정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은 삶을 마무리 짓고, 이 삶을 넘어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죽음은 이러한 넘어감이며, 삶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테지요.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수많은 헛된 노력들이 오히려 지금 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매 순간 존재하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죽음을 성찰할 때 죽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죽음은 삶의 첫 말이 될 것입니다.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1월 9일 오연희 마리아 신부(40세)
- 1954년 11월 5일 김희덕 베드로 신부(47세)
- 1973년 11월 9일 왕송석 야고보 신부(32세)
- 2004년 11월 8일 김몽은 사도 요한 신부(77세)
- 2023년 11월 5일 도 미카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86세)

##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교구청 알림

####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1회)

때, 곳: 11월5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1월9일(토) 15시, 가톨릭회관 3층

#### 제4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5년 1월6일~17일(11박12일) / 지도: 김덕재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1월7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코스트홀) / 집전: 양용석 신부(페루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 서울대학교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1월18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손유민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 제52회 가톨릭 에코포럼

때, 곳: 11월13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유엔의 기후협상과 종교의 역할  
강사: 민정희 사무총장(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신청방법: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  
팀 큰사랑봉사회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미경 개인전: 1전시실  
제24회 가톨릭사진가회 정기회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6일(수)~14일(목)

#### 2024 요한계 문헌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성경 지참) / 강: 조창수 신부  
내용: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때, 곳: 11월8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 민족화해위원회

- 1) 2024 한반도평화니눔포럼  
주제: 평화를 향한 여정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내용: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 인식 제고 및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 평화 토크콘서트  
때, 곳: 11월15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코스트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http://sharepeace.net)) 참조
- 2) 144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분당': 평양교구 강계 분당  
문의: 02)727-2420

####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금)~22일(금) / 3개월 수업(12월~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 1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1월4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 서울대학교 훈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훈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 '서울대학교 훈인교리' 봉사자 모집

활동기간: 2025년 1월~2026년 12월  
내용: 교육 진행 전반(훈인교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때, 곳: 둘째주 또는 넷째주(토), 가톨릭회관(명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28일(목)까지 이메일 접수(사목국 홈페이지 '알림 / 공문' 참조)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 2024년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미사 오승원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2부 11시-특강 정혜신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동시 진행  
때, 곳: 11월16일(토),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신청: 홈페이지(3079.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2024 한국평단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청년에게 희망을 - 교회는 청년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때, 곳: 11월16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발제: 김남희 교수(가톨릭대), 김민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조은솔, 서태원, 장소현 청년토론: 오승언 신부(동성중학교), 경동현 박사(우리신학연구소), 류관동 원장(양업문화원) / 회비 없음  
문의(사전접수): 02)777-2013 / 홈페이지([www.clak.or.kr](http://www.clak.or.kr)) 온라인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1월16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11월16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성령기도회

강사: 봉하령 신부(작은 예수수도회) / 010-6290-1639  
때, 곳: 11월9일(토) 10시~12시, 양원성당

####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1월28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 11월 '쉼'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곳: 11월8일(금) 20시~10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해외성지 순례

때, 곳: 2025년 7월25일(금)~30일(수)-몽골, 9월17일(수)~28일(일)-그리스·튀르키예  
문의: 010-2378-9104 / 사진 접수 필수

####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15일(금)~18일(월)·12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진복팔단은 우리를 성인으로 이끈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중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1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 12시초지구 성령기도회

미사·안수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11월4일 강요셉 신부 11월25일 배형진 신부

####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미사 19시), B1 경환당(주차 가능) / 문의: 010-9518-1601 (문자)  
11월8일 김현우 신부 11월15일 박효철 신부

####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1월5일 배갑진 신부 11월12일 신교선 신부

####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프로그램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 문의(접수): 02)3276-7794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매우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 문의(접수): 02)3276-7799  
희망의 순례자들 / 송봉모 신부  
때, 곳: 11월14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차 11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제12차 12월27일(금)~2025년 1월4일(토) 010-3540-9001  
제13차 1월24일(금)~2월1일(토)

#### 글라렛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1월10일(일) 11시~15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  
·3월15일~17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  
월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  
~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24일~27일·3월1  
일~4일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11월21일~23일·12월1일~3일·12월6일  
~8일·12월14일~16일,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  
·1월16일~18일·1월20일~22일, 추자도 포함 1월  
25일~28일·3월13일~16일·3월23일~26일 / 문의(접  
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11월13일(수) 12시30분~17시 / 회비: 1만원  
영성 피정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송봉모 신부, 한철  
호 신부,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11월16일(토) 12시30분~17시, 가  
찬양 피정 톨릭회관 3층 강당 / 윤민재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 피아골 해외·국내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이탈리아 일주	2025년 5월14일~25일
홍성남 신부와 일본 도쿄	3월10일~14일
부산교구 순례	11월14일~16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11월29일~30일

####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대림 1일 피정(개인·소그룹) 12월5일(목), 12월19일(목)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8일~10일, 12월20일~22일(연말 피정)  
엄마와 딸·아들(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영신수련 8일 피정 2025년 1월3일~12일(9박10일)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21일(토)~22일(일), 2025년 2월14일(금)~15일(토)  
3박4일 11월28일(목)~12월1일(일), 12월5일(목)~8일(일)  
8박9일 11월14일(목)~22일(금), 12월26일(목)~2025년 1월3일(금)  
40일 12월14일(토)~1월22일(수)

#### 예수교회회 서울 명성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2월6일 10시~15시30분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날 11월14일(목) 10시~15시  
단식 피정 11월25일~29일(4박5일)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14일(3박4일)  
대림 피정 12월3일~12월10일·12월17일(매주(화) 10시~16시)  
송년 피정 12월31일~2025년 1월1일(1박2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 교육

####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

접수: cafe.naver.com/cmc04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마르코(예수님 수외와 함께) 무료 강좌

때, 곳: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성 바오로  
수도회(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  
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 가톨릭온(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기도에 관심 있는 분 / 수사 접수  
내용: 구세사(김혜운 수녀), 지혜여정 시리즈 여러 강좌  
문의: 010-3092-1108(www.catholicon.co.kr) 생활성서사

#### 자신의 본성을 찾는 치유의 길 자기실현

용 분석심리학의 권위자 이부영 교수 특강  
때: 11월28일(목) 14시30분~15시30분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ijscen.or.kr  
회비: 2만원 /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 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한  
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 대상: 60세 이상  
때, 곳: 11월11일~25일·12월9일~16일, 강원도 홍천  
회비: 1주 75만원, 2주 150만원 / 문의: 010-7451-9707

####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  
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코딩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합숙지도, 기타  
지도 가능한 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월28일(월)~11월10일(일) / 면접: 11월22일(금)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  
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  
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파인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기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 가톨릭성서모임-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림형 성경통독-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께 읽어보세요 / 대상: 성경통독을 원하는 분  
때: 민수기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터 시작), 요한복음서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터 시작)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 모집

**서초동성당 헬름 오케스트라** / 문의: 010-7743-2302  
대상유급: 바이올린, 호른, 트럼펫, 트럼본 / (일)21시 미사

## 청년공간 모라모라 자원봉사자 모집(CLC)

청년들을 위한 3천원 김치찌개 주말식당  
내용: 설거지, 재료 준비, 홀서빙 및 관리  
때: (토)~(일) 10시~15시·16시~21시(5시간) 택일  
곳: 시흥1동 / 식사 제공, 봉사시간 인증  
문의: 070-4285-2459 한국CLC

## 미사

###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담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1월9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첫째주(목) 11월7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이원근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1월4일(월) 14시, 국군중앙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참석: 군(軍) 성당 신자 및 민간교구 신자  
주례: 서상범 주교(군중교구장) / 문의: 02)749-1921  
공동집전: 천주교 군중교구 사제단  
때, 곳: 11월6일(수)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1월6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 안내

### 서울가톨릭성서즈 정기연주회

때, 곳: 11월9일 오후 8시, 서초동성당  
곡목: 포레 레퀴엠 등 / 문의: 010-4032-7530

###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 문의: 031)850-1427

## 익산 성글라리아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사)

##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5주년 추모 음악회

때, 곳: 11월11일(월) 19시30분, 명동대성당  
연주: 가톨릭합창단, 부산가톨릭합창단  
무료 공연 / 정보: www.catholic-choir.or.kr  
문의: 010-3211-5195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이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 유관단체 알림

###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 떼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11월16일·12월21일·2025년 1월18일·2월15일·3월15일 15시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 직원모집

###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간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모집 / 02)426-9663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 홈페이지 채용 안내 참조

### 직원·봉사자 모집(성가복지병원)

분야: 영양과 조리사 0명 모집(2교대), 의료봉사자(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 문의: 02)940-1503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과위생사 2명 / 문의: 02)2634-1760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 청년문화공간JU 직원모집 / 문의: 02)338-7830

분야: 청년·청소년 사업담당자  
11월8일(금)까지 접수(청년문화공간JU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 11월 중 면접 예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창5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소방·가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11월24일),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23일(토)까지 이메일(france@seoul.catholic.kr) 및 방문 접수 / 문의: 02)990-5684

### 문래동성당 사무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2678-0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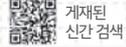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인 신자 1명(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7일(일)까지 이메일(johncho@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729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2 문래동성당 사무실) / 제출된 채용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 서울대교구청 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회계 관련 경력자  
분야: 재무·회계 담당 1명(팀장급) /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7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로 문의

###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 세탁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 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신간  
기도란

바브 시스키에비츠 지음  
성바오로 | 96쪽 | 7천원  
문의: 010-2572-1365

이 책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들에 답을 제시해 주는 안내서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느님과 더 깊고 굳건한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느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



신간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 조배란

미셸 존스 슈뢰더 지음  
성바오로 | 90쪽 | 7천원  
문의: 010-2572-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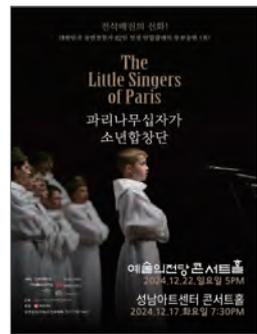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감실 앞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다. 성체 조배 시간은 마음속 기쁨과 두려움, 감사는 물론,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가져갈 완벽한 기회이다. 성당(또는 조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간  
유스티노 신부의  
치유의 순례기 2  
- 세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김평만 지음  
예지(Wisdom) | 284쪽 | 2만원  
문의: 031)900-8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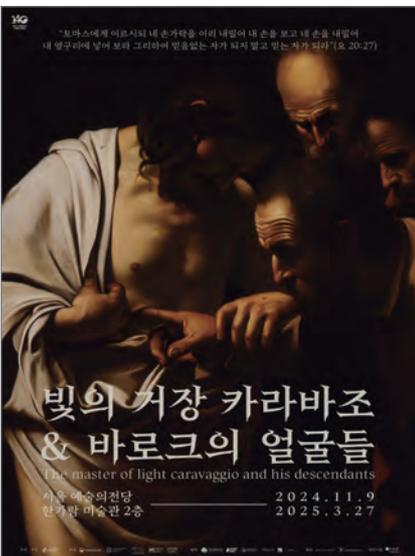
저자 김평만 유스티노 신부님이 이나시오 영신수련을 지도한 피정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며 느낀 바를 정리한 책이다. 이나시오 성인과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위해 투신했던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삶과 가르침을, 사진을 곁들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연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4만원(예술의전당) /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성남아트센터)  
문의: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교황 비오 12세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2월 17일(화) 19시 30분, 성남아트센터와 12월 22일(주일) 1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을 진행한다.



전시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

기간: 11월 9일(토)~2025년 3월 27일(목)  
관람시간: (화~주일) 오전 10시~오후 7시(매표 및 입장 마감 오후 6시 /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입장료: 성인 2만2천원, 청소년 1만7천원, 어린이 1만4천원(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02)909-4752(info@caravaggio2024.com)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대한민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전시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은 이탈리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심하는 토마스>, <그리스도의 체포>, <이 뺨는 사람> 등 세 작품을 포함한 카라바조의 회화 10점과 동시대를 풍미한 바로크 거장들의 회화 47점, 총 57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르네상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로크 시대가 막을 올린 17세기 유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